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 기반 조성 '집중'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가동

전주시, 도시개발 분야 5대 역점시책 제시... 도시 균형발전 위한 도시개발·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전주시가 계묘년 새해를 미래광역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오랫동안 전주 발전을 막은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지난 31일 광역도시기반조성실 신년브리핑을 통해 '살기 좋은 100만 광역도시 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도시개발 분야 5대 역점시책을 제시했다. 5대 역점시책은 △100만 통합 미래광역도시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적극 행정을 통한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시민 생활의 질 향상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 개발 및 공간구조 재편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한 생활SOC확충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활력 넘치는 도시정비 등이다.

먼저 시는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종합경기장 개발이라는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야구장을 먼저 철거한다. 동시에, 미래 경제성장의 큰 발판이 될 MICE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와의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는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 시설 건립도 본격화된다. 시는 지난해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들어설 대체 시설인 1종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올해 초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는 또 각종 재개발·재건축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불필요한 각종 규제 완화 검토와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 절차와 각종 분쟁 사례를 교육하는 '도시정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 실태도 꼼꼼히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개별 심

의를 통합·심의함으로써 사업기간과 행정비용을 줄이고,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와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비용,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자 주거 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동시에 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남권의 도시환경 개선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점이 필요한 전주교도소의 경우 올 연말까지 이전 부지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2025년까지 신축·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북부권 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인 에코시티 2단계 조성 사업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선제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세내교~해성삼거리~중안나들목)에 대해서는 기존 1단계 구간(해성삼거리~중안나들목)을 완료

한 데 이어, 2단계 구간도 올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상습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삼천교~해성삼거리부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주역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조성 △열악한 주거밀집지역 생활SOC 확충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을 위한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 조성사업 등에 속도를 내고, 범죄예방과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착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2023년은 전주의 위대한 도약을 위한 광역도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그 중심에서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광역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전주시가 건조한 봄 날씨와 농업 활동 재개 등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양 구청과 합동으로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일 앞당긴 2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시는 본격적인 산불방지기간을 맞아 2월 1일부터 양 구청과 함께 산불전문진화대 등 산불 감시 근로자 총 146명을 취약지역과 거점 지역에 배치해 산불감시 및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감시에는 카메라와 드론 등의 장비도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중습도가 낮고 논·밭 경작을 위한 소각행위가 산발로 이어질 우려가 큰 봄철을 앞두고 산불 예방과 주민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동시에, 취약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민약의 산불 발생시에는 감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산불 초동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내버스 승강장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이용해 홍보하는 한편, 확산, 행차봉, 전지산 등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관련 페인도 발이기로 했다. /양은경 기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 추진 위한 간담회 가져

'치매 걱정 없는 안심도시 만들기'를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전주시가 전북지역 최초로 시행되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주지역 장기요양기관협회들과 머리를 맞췄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난 31일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에서 전주주요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전북지부, 노인장기요양바른경영연합회 등 전주지역 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치매 환자 보호기능 확대와 부양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

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은 지역 사회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민선 8기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사업으로, 시는 치매노인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을 통해 맞춤형 치매환자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이들에게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 부양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들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도울 계획이다.

/양은경 기자

우범기 시장, 전주 찾은 최상대 기재부 차관에 국비 지원 요청

오찬 간담회 갖고 왕의 공원 프로젝트·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등 전주시 주요 현안사업 예산 반영 적극 건의

전주시가 국가 예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왕의공원 프로젝트 등 전주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31일 전북대 특강을 위해 전주를 찾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김현곤 재정정책국장, 이혜림 지역예산과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우 시장이 이날 건의한 주요사업은 △왕의 공원 프로젝트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전주 디지털 미디어융합특화단지 조성사업 등이다.

먼저 왕의공원 프로젝트는 후백제의 고도이자 조선 왕실의 분향인 전주의 특별한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과 연계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대규모 계획으로, 시는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이에 우 시장은 전주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미래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31일 전북대 특강을 위해 전주를 찾은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김현곤 재정정책국장, 이혜림 지역예산과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수 있도록 향후 추진될 예비타당성 조사 선정과 국비 지원 등 왕의공원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

다. 우 시장은 또 전북혁신도시에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이전 공공기

관 업무 관계자, 전주시민들에게 고품질 공연을 선보일 대규모 전문 공연장을 건립하는 혁신도시 복합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기재부와 중앙부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정부안 미반영 사업을 재정비해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를 찾은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에서 전북대학교 학생과 교수, 공무원 등 80명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발전 비전 및 전략'을 주제로 전주방문 특강을 갖기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우뚝 서고, 찬란 미래를 여는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전주 발전을 이끌 대규모 국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기재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 전북도와 끈끈하게 공조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엄익준 완산구청장, 경로당 찾아 소통의 시간 가져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완산동 소재 백학정경로당을 찾아가 최근 냉동고 한파로 인한 추위에 관련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살피는 등 뜻깊은 시간을 지난 31일 가졌다.

이날 엄 구청장은 한분한분 어르신들의 안부를 여쭙고 동절기 건강 및 안전에 대해 당부하며 계속되는 한파

에 따른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경청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경로당 어르신들과 안부를 묻고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 감명이 깊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정중심 소통행정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경찰서, 차량털이 절도범 검거

고창경찰서(서장 고영환)는 지난 31일 주차장, 노상에 차량문이 시정되지 않은 주차장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 했던 절도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요즘 차량털이 범주는 절도범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

지 않거나 차량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등을 범주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차량절도 예방수칙으로 CCTV 사각지대 주차 자제 △차량 내부 귀중품 보관 금지 △사이드미러 접어두기 △주차 시 차량 문 반드시 시정여부 확인 등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